

2017년 5월 19일, 조천읍 선홍1리 선홍1리노인회관, 강수경 조사.
부순아(여, 1927년생, 조천읍 선홍1리)

- 줄거리: 사촌과 함께 유채를 베러 갔는데 안개가 좀 끼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. 유채밭에 가보니 유채가 다 익지 않았다. 사촌은 익은 유채가 얼마 없으니 혼자 해도 되겠다며 집에 갔다가 내일 온다고 하였다. 그러라고 하고 혼자 익은 유채만 훑으는데 펑 우는 소리가 들렸다.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도 펑은 날아가지 않아서 이상하다 여겨 돌을 던졌다. 돌을 던지니 이제는 그 옆에 나무 아래서 펑 우는 소리가 났다. 다시 그 나무 아래에 돌을 던지니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 소리가 들렸다. 이젠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겁이 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. 그래도 밭에서 나가려고 호미 들고 점심 그릇을 졌다. 돌을 들고 염불을 계속 부르니 이젠 길 옆 동산에서 펑 우는 소리가 들렸다. 돌을 두드려서 돌가루를 내고 길로 나와서 다시 앉아서 염불을 부르면서 돌가루를 계속 냈다. 이젠 펑 우는 소리가 동산 소나무 위에서 들렸다. 해는 지고 안개가 끼니 이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오는데 계속 펑 우는 소리가 들렸다. 그래도 돌맹이를 안고 집 앞까지 와서 골목에서 뒤로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니 도깨비에 홀리지 않고 살았다.

[조사자] 어르신 실제로 도깨비에 놀래가지고 굿했던 이야기 잇수게.

[제보자] 아니, 굿 그때는 많이 헛저. 어린 때는.

[조사자] 거난.

[제보자] 그냥 흑교에 덩기당도 도깨비 들령 굿허곡. 어디 강 일허당 완, 저 밧디서 저 우리 종순 메누린 밧디 간 검질 메당 윽이 영 여름에 조라우난 영 헌디 도체비 걸런 굿허곡.

[청중] 어둡은 땀 덩기당 보민 그런 불 비추는 걸 봐.

[제보자] 옛날은 불이 잇어났주게. 잇어났어. 헛불이.

[조사자] 봐났수과? 도체비 봐났수과?

[제보자] 난 보진 안 허고이. 이거 멧 년 안 땡저. 유채 갈 때. 유채 갈아나건 디도 멧 십 년 땡엇어이. 이젠이.

[청중] 하이고 춤 멧 십 년.

[제보자] 온밧디 보리 갈곡, 경주아방 밧을 빌언에 유채 갈앗주. 지금 저 공동장 헌 밧디. 이젠 보릴 못 비난, 시에 우리 스촌이 나보다 훈 나 위라. 혼자 사난, “성님 왕 보리 비어줍서.”

허난, 오란 보릴 비는디, 큰밧디 간 보리 비단 쪼금 해가 남은 거라. 거문 막 그

날 안개 전 호끔 안 존 날이야. 안개 폭 끼친 날인데. 보리 빌 때난 이떨 거야 아마. 이때 전인가 모르겠는데. 이젠 그디 보리 비단, 나도 나주. '성님이랑 갓당 따시 읍센.' 허컬.

“저 밧디 강 유채 호끔 돌르당 가젠.”

헤연. 온밧디서 그때사 무신 차가 시냐, 무신 구르마가 시냐. 걸어왔언 온밧디서 그 동산을 간 거라. 간, 여기 산 잇고 밧이 이렇게 된 밧이라이. 요딘 질이니까 이디 들어간 점심 그릇을, 이제 그 점심 그릇에 호미에 놓고. 난 이건 실지 이건 내가 당헌 거라. 호미영 점심 그릇이영 이레 놔 된, 문딱 안 익언. 유채가 요렇게 뱅허게 익은 디, 이건 놔이 밧이라. 이건 놔이 밧이고 요만쪽이 오난, 이젠 호미 이디 놔 된, 그자 익은 델로 그자 호썰 둘랑 하영도 아니 요만쪽이 오난 스춘이.

“에에, 느만 헤도 허켜. 날랑 갓당 널랑 오마.”

경 허난.

“경 헉서 성님 갑서.”

성 보내된. 요영 돌아온디, 아 이디서 그냥 뽕빙에기 소리가 하도 나는 거라. 뽕빙에기 소리가. ‘원 이상허다. 아 절로 영 오난 뽕 잇이민 놀아날 텐디.’

이젠 내가 요??정 온 거라. 이디 나가 우리 유채 비명 온 거라이.

이젠 일어산 요디 돌은 훑은 거 아니고 담 앗안 이레 팡허게 데꺸지. 뽕이믄 맛던지 놀아나라고. 이레 데끼난 아 이젠 난 이디서 지금 데끼디. 이디 멩게냥 자울 알에 오란 웨는 거야. 쉼쉼 그냥 하도 웨언.

이젠 다시 일어산 이젠 돌을 앗안, 이거 원 춤 거짓말이엔 헐 거여. 팡허게 멩게냥 자울더레 낫주게. 그 담 질러레. 팡 허게 노난, 아 딱로 이젠이 나 호미 논, 요 너른 디, 지금 그 산 쓴 디 말고 난 싱근 디 오란 아 그렇게 웨질런. 아 이젠 나을 수가 엇어. 헤는 저 오고. 안개는 폭 끼친 날인디. 이젠 이디 나오라야, 영 나오라야 아스팔트 길인디, 아 이거 이디서 웨어가난 그땐 머리쿨이 과썉헤라게.

[청중] 돌궤루 뽕아가민 그게 엇어진덴.

[조사자] 곱읍서.

[제보자] 두 번을 앗앙 팡허게 노니까 아 따시 이디 오란 웨니깐 그때부턴 머리가 나가 과썉 상, 어떻게 헐 수가 없어. 몸을 가눌 수가 없어.

[청중] 직성이 썰난 경 헛주. 경 안 헛이믄 놀랄 거주.

[제보자] 아, 큰일나겠다. 이젠 해는 진 때고. 나가 이제 이딘 나오란 요디 나오믄 아스팔트주. 이딜 나오믄 게도 차도 덩기곡 사람도 덩기곡 헐디. 머리가 상 나을 수가 없어. 이젠 허단 버천, 이디 죽건 죽젠 오란, 호미 들르고 점심 그릇은 들러메곡. 이젠 여기 큰돌이 잇어이. 저 핏내. 돌을 들러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불르멍 막 그냥, 막 헛지.

막 염불을 오래 불렀어. 아 경 헤가니까 이거 아스팔트디 이젠 그 동역이네 그 높은 동산에 오란, 이 질로 나가 나와야 뉼 건디, 이 동산에 오란 또 웨는 거라. 이

것이. 원 죽으믄 죽어도 나가 질레에 나가야 돼지.

이젠 그 돌 못는 걸, 도체빈 그 돌궤루 냄새 나민 도망간덴 허주게. 그놈을 안아
앗언 막 염불 부르멍 닐 끌고, 신작로에 나오난 따시 그냥 발 번영 앗앙 막 팡팡 두
드렸어. 경 해도 이젠 그 동산 위, 그 앞이 소낭 잇어났주. 큰 동산, 큰 소낭. 아 동산
까지. 이젠 소낭까지에서 웨는 거라. 어떻 혈 수가 없어가지고, 이젠 이 돌 못상 막
못단 이젠 해는 지고게 안개 진 날이난. 이렇게 안고 이젠 혈 수가 엇인 거라. 좌순자
네 밧까지 오라도 그 웨는 소리가 들려. 그디서. 경 해도 막 그 집이??장 이걸 안앙
오란 집더레 들어갈, 골목더레 들어갈 땐 영 데껴도 가난, 나 도체비 안 들령 살안.

[조사자] 아까 뭐, 들령 앗당, 데껴불엇?

[제보자] 돌멩이, 돌멩이. 돌궤루 냄새 나면은 도체비는 돌아난다 허니까, 팡팡 막 못신
걸 안아 앗언 골목더레 집이 들어가젠 허난 이렇게 데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
가난 나가 산 거라. 나 원 촌.

[청중] 직성이 췌니까 경 안 허시믄 놀랄 거주.

[제보자] 그냥 놀랄 게 아니고, 어디레 꽃영 갈 거주. 꽃영 가. 놀래믄. 앞이 상 꽃영 간덴
헌다. 옛날 도체비가.

[조사자] 이거는 언제쯤마씨?

[제보자] 유채 갈 때난 오래엇주게. 이제 유채 설르건 디도 오랫동안. 유채 갈 때난.

[조사자] 한 삼십년 전이?

[제보자] 삼십 년만 뻬이카.

[조사자] 삼십 년 넘어 뵈우다.

[제보자] 오래엇저. 유채갈 때난, 지금 우리 아덜도, 이제 육십이난, 아이고 혼 오십년 된
거 닳다. 오십 년도 더 뻬엇주. 나 유채갈곡 막 보리 갈곡 놀아댕길 때난.

[조사자] 아. 게난 이제야 아스팔트. 그때 그냥 한질예?

[제보자] 한질. 한질에만 나오면, 차도 뎡기곡, 사람도 뎡기곡 허니까. 날은 해는 이젠 떨
어지곡게. 경 헤가난 바싹 못소완 영 헨 안앙 앗언 오란. 영 데껴된 뒤돌아보지
안 헌덴 헌다. 그냥 나도 들은 말이 어른덜앞이 있으니까. 나 이제 생각해도 그
때 내가 조금 헛이믄 흘령 어디레 막 꽃어 갈 거주.

[조사자] 도체비는 돌궤루 냄새 맡으믄 도망 갑니까?

[제보자] 게. 어른덜이 경 굴으난 우리가 아느냐게. 할머니, 어른덜이 경 말해. 만약 드르
에 강 뻬허면 돌궤루 냄새 나면은 그것이. 막 팡팡 막 관세음보살 부르멍 막 혼
시간은 그냥 앗앙 막 췌게 웨엇주게.

[청중] 돌궤루 내가 나면 그것이 엇어진덴 허는 거주.

[제보자] 경 헌덴 헌다.

- 핵심어 : 팡 빙에기 소리, 도체비, 돌궤루, 유채밭, 굿, 돌멩이, 관세음보살, 도깨비, 팡, 돌가루